

# 김관영 도지사, KIST 원장과 협업 소통

## 전북자치도, 지진 피해건축물 2차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KIST 오상록 신임 원장 전북분원 방문계기 연구원과 인연 이어가  
김 지사, "미래 먹거리 이차전지·방위산업 성장 위해 협력"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오상록 원장, 최원국 전북분원장이 지역의 기술경쟁력을 위한 협업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원주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에서 김관영 지사는 지난 3월 취임한 오상록 원장의 전북분원 방문에 맞춰 환담을 나누며 KIST 공정장비등을 시찰하는 등 연구원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도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서울 본원에서 전임 원장 등 주요 임원 및 연구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신산업분야인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협업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 복합소재 산업 발전을 위해 탄소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있는 전북분원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 역량 강화에 긴밀하게 협업하자"고 인사말을 건넸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분원은 지

역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오 원장님께서도 전북분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며, "전북자치도가 역점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방위산업 등의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관련기관,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 및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써 다양한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보급, 국가 과학기술 구심체 역할,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은 지난 2008년 원주에 복합소재기술연구소로 설립돼 복합소재 분야 첨단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전문 인력을 배출했으며, 고기능성 복합소재, 탄소용 복합소재, 미래수송기기, 항공·우주 등 복합소재 원천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복합소재분야 첨단 원천 소재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육성을 위해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역 산·학·연 연계 첨단 소재 특화사업 △탄소복합재 공정장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만호 기자

2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등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건축물 균열, 전기절연·누전, 가스 배관연결 상태 등 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한 피해 건축물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들로 구성된 1차 안전점검에서 '사용 상 유의' 판정을 받은 건축물 20개소이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관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분야는 건축물과 전기, 가스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주요 구조부 균열과 변형 상태, 지붕·내외부 누수

상태 및 지반부 등 침하 여부, 주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외장재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서는 배·분전반 파손, 절연 및 누전상태, 가스 분야에서는 배관 연결 상태 및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건축주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번 안전점검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도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새만금유역 야영장  
오수처리실내 특별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7개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24일부터 야영장 오수처리실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새만금유역에 등록된 야영장 70개소이고, 전북자치도는 그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 시설, 정화조)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13개소를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집중적으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57개소는 오는 11월까지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오수 무단배출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 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자가 측정 기기관리인 선임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에서 KT&G 상상유니브(전북운영사무국) 및 (사)전북독립영화협회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자치도, 지역독립영화 발전위해 힘 모은다

최병관 행정부지사 "지역 내 영화문화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기대"

전북자치도가 지역독립영화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에서 KT&G 상상유니브(전북운영사무국) 및 (사)전북독립영화협회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심영아 KT&G ESG 경영실장, 박영완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 전북자치도가 KT&G 전북본부, (사)전북독립영화협회와 체결한 협약의 연장선으로, 협약내용을 강화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독립영화제작과 영

화인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의 발굴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에서 KT&G 상상유니브(전북운영사무국) 및 (사)전북독립영화협회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영화제작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 '단편영화 제작스쿨 운영사업' (상상단편영화제작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KT&G 상상유니브와 손을 잡고 오는 9월 예정된 영화상영회(달빛상영회)를 확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영화문화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심영아 KT&G ESG 경영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독립영화 발전과 영화를 사랑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상유니브'는 지난 2010년부터 KT&G가 대학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전국 대학생 커뮤니티로, 현재까지 누적 참여자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프렌즈', '상상마케팅스쿨', '상상블루 파빌리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문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천리길 활동가 신규교육 접수

7월 10일까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태관광지·전북천리길 홍보와 탐방객을 안내할 생태관광 활동가 신규교육 신청을 7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생태관광 활동가는 탐방객들에게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생태관광·천리길 해설서비스 제공, 체험프로그램 진행, 홍보마케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전북생태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생태관광·천리길 프로그램 기획·해설·홍보 이론교육과 현장해설사 교육, 해설 시연 등 총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생태관광활동

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7월 10일까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ecotour.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해원 환경복지국장은 "전북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홍보할 생태관광 활동가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태관광지는 2015년부터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창 운곡습지 등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JC회원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기원행사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민의 열원이 커지고 있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구JC회원이 지난 22일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제54차 전북지구회원대회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 최부규 회장과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이상민 회장을 비롯해 전북지구청년회원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는 전북으로', '글로벌 생명경제의 시작!!'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했다.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 최부규 회장은 "전북은 연구소와 기업 등 바이오 분야에 인프라 등 강점이 있어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첨단기술과 산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